

# 북한의 권력 엘리트 조용원의 부상과 역할 변화 연구

이준희\*

- I. 서론
- II. 이론적 틀 및 연구 방법
- III. 조용원의 정치적 부상 과정
- IV. 조직비서 조용원의 역할과 위상 분석
- V. 전망과 결론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현재 북한정치에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조선로동당 조직비서 조용원의 정치적 경력과 그가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 정치에 대한 자료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회주의권의 사례를 적극 활용하였는데, 그중에서도 소련의 레오니트 브레즈네프를 보좌하였던 콘스탄틴 체르넨코의 경력과 역할이 현재 조용원과 매우 유사한 것에 주목하여 체르넨코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 조용원의 정치적 성장 과정을 정리한 이후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조직비서로 임명된 이후 조용원의 역할을 김정은의 비서, 군기반장, 김정은과 당 사이의 연관관 3가지로 분류하였다. 이 3가지 역할을 분

석한 결과 조용원이 김정은의 당내 대리인 역할을 맡아 당을 관리하고 김정은의 정권 장악을 보좌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조용원의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상의 한계로 인하여 북한의 정책 결정에 있어 그의 영향력은 제한될 것이며, 그와 김정은 사이의 상하관계는 철저히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따라서 현재 조용원이 북한정치에서 대체 불가능한 특수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주제어:** 김정은, 조용원,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정치국, 조선로동당 비서국, 조선로동당 조직비서, 대리인.

\* 고려대학교 북한학 석사, TV조선

## I. 서론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조용원은 2023년 현재 북한정치를 논할 때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다. 2015년부터 김정은의 측근으로 주목받아 왔으며<sup>1</sup> 주영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는 그를 실세 중 한 사람으로 꼽기도 했다.<sup>2</sup> 조용원은 2019년 정치국에 진출하면서 북한을 움직이는 핵심 지도부의 일원으로 떠올랐고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겸 조직비서로 등극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당의 실무와 조직문제를 담당하는 핵심 파워엘리트로 격상되었다. 그는 8차 당대회에서 신설된 총비서의 대리인 직무인 ‘제1비서’의 유력한 후보 중 한 사람으로도 꼽히고 있으며<sup>3</sup> 2019년 신년사 발표, 2019년 10월 백두산 등정, 2021년 4월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등에서 김정은 일가족 및 김창선, 박정천 등 극소수의 최측근과 함께 나란히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등 행보에서도 특별한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sup>4</sup> 김진하는 조용원의 사례를 ‘신데렐라 스토리’로 평하기도 하였다.<sup>5</sup>

북한의 전통적 엘리트 정책은 절대로 수령의 지위를 위협하는 인물의 등장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혁명적 수령관’이 확립, 북한의 지도자는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일 뿐 아니라, ‘인민의 최고 뇌수, 혁명의 최고 뇌수’로 인민대중의 근본 이익과 요구를 개인적으로 체현하는 노동계급의 수령이며, 역사 발전의 원동력,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으로 격상되었다.<sup>6</sup> 따라서 이론적으로 수령과 수령이 아닌 엘리트의 차이는 크게 벌어지게 되었

<sup>1</sup> 고성호, “국정원 ‘北 SLBM 시험 발사 김정은 현장서 지켜봐,’” 『동아일보』, 2015.12.01.,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51201/75110918/1>> (검색일: 2023.10.18.).

<sup>2</sup> 한상혁, “태영호 “북한 비선실세는 조연준, 조용원, 박태성,” 『조선일보』, 2017.01.18.,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8/2017011801100.html](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18/2017011801100.html)> (검색일: 2023.10.18.).

<sup>3</sup> 배진영, “북한 노동당 ‘공식2인자’ 제1비서직 신설... 독재국가 2인자들의 최후는?,” 『월간조선』, 202.06.02., <[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2624&NewsNumb=20210612624](https://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12624&NewsNumb=20210612624)> (검색일: 2023.10.18.).

<sup>4</sup>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하신 신년사,” 『조선중앙텔레비죤』, 2019.01.0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9.10.1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1.04.16.

<sup>5</sup> 김진하,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권력집중 전략,”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 p. 70.

으며, 김정일이 권력세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부들에 대한 통제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에 이르기까지 크게 강화되었다. 간부들이 혈연, 학연, 지연 등을 매개로 한 파벌 형성은 엄격하게 차단되었으며<sup>7</sup>, 결과적으로 조선로동당은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며 혁명의 참모부,’ 사실상 수령의 사당(私黨)으로 전락하였고, 수령과 그 후계자를 제외한 간부들의 영향력은 줄어들었다.<sup>8</sup>

그러나 아무리 수령의 지위와 역할이 압도적이라고 할지라도, 현대국가인 북한을 수령 개인이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수령에게는 그를 보좌할 간부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간부들 중에는 다른 간부들에 비해서 예외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도 없지 않았는데, 김정은 집권 초기로 한정하면 장성택, 최룡해, 황병서 등이 북한의 2인자로 거론되었다. 2020년대 이후 언론에서 북한의 2인자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조용원이다.<sup>9</sup> 이상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모두 조직문제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최룡해, 조용원은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 장성택, 황병서는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역임했다. 최룡해, 황병서는 군의 당 조직과 정치사상 사업 전반을 관장하며 당 조직지도부와 연계된<sup>10</sup> 총정치국장을 역임했다.

그런데 조용원은 앞서 다른 인물들과 비교하여 몇 가지 특기할 점들이 있다. 첫째는 그가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그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의 권부 진입은 전적으로 김정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장성택, 최룡해, 황병서는 모두 김정일의 측근 출신으로, 김정은 집권 이전부터 당과 군의 고위 간부로 사업해 왔다. 그러나 조용원은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으며,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주목할 정도로 빠른 승진을 거쳐 오늘의 자리에 이르렀다. 둘째는,

<sup>6</sup> 이기동, “수령제의 지속성과 변화,” 북한연구실 (편),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pp. 19~22.

<sup>7</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pp. 180~184.

<sup>8</sup>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1), pp. 222~223.

<sup>9</sup> 김명성, “최룡해 제치고 2인자 등극... ‘김정은 분신’ 조용원은 누구,” 『조선일보』, 2021.01.1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90410?sid=100>> (검색일: 2023.10.18.).

<sup>10</sup> 이종석, “김정일시대의 조선로동당: 위상·조직·기능,” 이종석·백학순(편),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07), p. 25;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 64;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p. 264.

조용원이 보여주는 ‘김정은의 비서’ 혹은 ‘대리인’으로서의 모습이다. 학자들과 언론의 관측을 통해 두드러지는 조용원의 특징은 마치 그림자처럼 김정은을 수행하는 그의 행보에 있으며<sup>11</sup>, 본 연구에서는 그의 실제 업무 역시 그가 김정은의 당내 비서, 당무의 대리자, 당과 수령 사이의 연락관을 맡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가 북한 정권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한 것은 출범 10년을 넘긴 김정은 체제가 아버지 김정일 시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김정은이 발탁한 인적 구성으로 채워지고 있음을 상징하며, 김정은 시대 간부 정책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용원이 보여준 독특한 행보와 그의 이례적인 속도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북한 엘리트들에 관한 연구는 엘리트 집단 전체를 다루는 연구나 김영정과 같이 김정은 일가에 속하는 소위 ‘백두혈통’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령과 그 일가를 제외한 북한 엘리트들에 관한 개별적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는 북한정치와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점에서 기인하며, 본 연구 역시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검증할 수 없는 정보들과 추정에 의존한 실험적 연구에 그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 조용원이 보여주는 이색적인 경력과 위상을 볼 때 그에 관한 연구는 김정은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 II. 이론적 틀 및 연구 방법

### 1.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크게 2가지 전제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한다. 첫째는 수령이라 하더라도 홀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수령에게는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대리인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용원의 현재 직무가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라는 것에 주목, 첫 번째 전제를 좀 더 구체화하여, 조용원이 비서국을 중심으로 당 사업에 있어서 김정은의 대리인을 맡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전제에 관하여, 권위주의 정권의 동학에 대해 폭넓은 분석을 내놓은 밀란 스볼릭(Milan W. Svoblik)은 소수의 지배 엘리트와 다수의 피지배 민중의 대

<sup>11</sup> 주진희, “북한 핵심 라인은?...‘집사’ 김창선·그림자 ‘조용원’,” 『MBN』, 2018.05.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246587?sid=100>> (검색일: 2023.10.18.).

립으로만 독재정권을 바라보던 기존의 프레임이 불충분하므로 정권 내부의 알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재자의 협력자들이 독재자를 축출하는 것이 가능한 ‘경쟁적 독재(contested autocracy)’와, 독재자가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의 지지에 의존하지 않고도 통치할 수 있고, 협력자들에게 축출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확립된 독재(established autocracy)’로 독재를 구분하였는데, ‘확립된 독재’라 할지라도 거대하고 복잡해진 현대국가를 혼자서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확립된 독재자들도 유능한 장군과 행정가들에게 어느 정도 의존하면서 자신의 권위에 일부 제한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스펀릭은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후세인이 행정가 집단에 의존해야 했으나, 이것이 개개인의 행정가들이 필수 불가결한 존재라는 뜻은 아니며, 그들이 ‘대통령의 피조물(creatures of the president)’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속해서 상기 받았다고 지적한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스탈린(Иосиф Виссарионович Сталин) 시절 당중앙위원회 제2서기, 소브나르콤 의장, 외무인민위원을 역임하면서 스탈린 정권의 2인자에 올랐던 바체슬라프 몰로토프(Виктор Викторович Шестопалов)가 남긴 말이 있다. 그에 따르면, 정치의 중앙화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의 회(소브나르콤, Совнарком) 의장 블라디미르 레닌(Владимир Ильич Ленин)의 업무량은 급증했다. 이 때문에 레닌은 자신에게 제출되는 서류들을 읽지도 못하고 ‘동지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무조건 재가할 수밖에 없었다. 레닌 사후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정치의 중앙화 현상은 더욱 강해졌고, 스탈린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은 레닌 시절을 능가하게 되었다. 몰로토프는 정치의 중앙화가 필요함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대리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되어야 한다고 첨언하였다.<sup>13</sup>

북한의 경우, 과거 김일성 시대에도 수령을 보좌하는 측근들의 존재가 중요하였을 것이나, 1970년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면서 그는 국가의 모든 업무를 자신에게 집중시키는 비준정치를 도입하면서 수령 개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량은 폭증하였으며, 김정일이 이러한 비준서들을 일일이 읽어보는 것도 불가능했다는 여러

<sup>12</sup> Milan W. Svobl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New York, 2012), pp. 6~7, pp. 79~80.

<sup>13</sup> 펠릭스 추예프 지음, 이완중 옮김, 『몰로토프 회고록: 스탈린을 위한 변명』(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pp. 339~340.

증언이 있다.<sup>14</sup> 따라서 그를 수족처럼 보좌할 측근들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 때문에 수령을 근접에서 보좌하며 간부 대오를 관리하는 조직지도부의 규모가 크게 비대해지고 그 기능과 위상도 강화되었다.<sup>15</sup>

김정은 집권 이후 ‘수령의 대리인’들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는데, 김정은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정치국 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 등 당의 제도적 협의체를 부활시키고,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당의 지도와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비서국의 권능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은 당 조직비서, 내각총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당 군사비서 등 직무를 중심으로 구성됨으로 당, 군, 내각, 인민정권기관을 대표하는 ‘대리인(Deputy)’들의 집합체로서의 모습이 완성되었다. 직무를 바탕으로 구성된 만큼 이러한 대리인들의 역할은 각기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내각총리는 경제, 조직비서는 당 사업,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입법과 인민정권기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겸 비서는 군수공업과 군정을 맡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당 규약상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된 제1비서 직함도 신설하였다(당규약 제3장 제26조). 여기서 대리인의 정의란, 지도자를 대체할 수 있는 독립적인 2인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박은혜의 연구에서 정의하듯이 최고정책결정자의 실제적 행동을 실행, 지시하나 직접 통치 행위를 할 수는 없는 존재를 의미한다.<sup>16</sup> 이러한 대리인들은 수령과 동등하거나 버금가는 존재가 아닌 수직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존재들로, 최근 김정은 시대 지도부의 인선 변동은 김정은 시대 지도 간부들이 수령에게 정치적 생명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7</sup>

두 번째 전제는 주로 소련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이다. 사회주의 당에서 서기국은 당의 업무를 일상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로 실질적인 정책 결정 기구로 작동하였다.<sup>18</sup> 또한 과거 레닌 시절 최초로 서기국이 설치된 문제가 간부 문제 해

<sup>14</sup> 장진성, 『수령연기자 김정은: 북한의 권력실체 당 조직지도부를 해부한다!』 (서울: 비봉출판사, 2017), pp. 81~85;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403~414;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개정판)』 (서울: 시대정신, 1998), pp. 19~20.

<sup>15</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118~124, pp. 228~233.

<sup>16</sup> 박은혜, 안문석, “북한정치에서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4호 (2022), p. 129.

<sup>17</sup> 이준희, “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 김정은과 그 지배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9, No. 1 (2023), pp. 37~68.

<sup>18</sup> 중국공산당에 대해서는 조영남, 『중국공산당 통치체제 1: 공산당 영도체제』 (파주: 21세기북스, 2022), pp. 215~222, 동유럽의 사례로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에 대한 분석은, Karel Kaplan, Edited and translated by Fred Eidlin, *The Communist Party in Power: A Profile of*

결을 위해서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간부 인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구였다.<sup>19</sup> 흐루쇼프(Никита Сергеевич Хрущёв)가 베리야(Лаврентий Павлович Берия)와 말렌코프(Георгий Максимилианович Маленков)를 제압한 사례, 브레즈네프(Леонид Ильич Брежнев)가 코시긴(Алексей Николаевич Косыгин)과 포드고로니(Николай Викторович Подгорный)를 제압한 사례에서 당을 장악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필수라는 공식이 정립되었는데<sup>20</sup>,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인선 문제를 담당하는 서기국을 장악해야 했다. 따라서 서기장에게는 서기국 내부에서 서기장을 조력하는 강력한 측근의 존재가 매우 중요했다.

1964년 10월, 간부회(정치국)의 반란으로 축출된 니키타 흐루쇼프의 경우, 서기국 안에서 군대, 군수공업, KGB를 담당하면서 그의 수족으로 활동했던 코즐로프(Фрол Романович Козлов)가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당을 장악하는데 큰 타격을 입었다. 이전까지 간부회원들은 자신들을 해임시킬 수 있는 정보를 장악한 코즐로프를 대단히 두려워하였으나 그가 정치무대에서 퇴장한 후에 본격적인 반 흐루쇼프 음모를 조직하게 된다. 그 결과 보안기구인 KGB와 군대까지 반 흐루쇼프 집단에 가담하게 된다. 코즐로프만 있었다면 흐루쇼프가 물러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sup>21</sup> 흐루쇼프를 축출하고 당중앙위원회 제1서기로 선출된 브레즈네프는 집권 초기, 간부 문제를 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경쟁자들인 셸레핀(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Шелепин)과 포드고로니의 측근들을 제거하고, 두 사람을 제압하여 서기국에서 축출하는 한편 소위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Днепропетровск) 마피아'로 불린 자신의 과거 부하들을 당중앙위원회로 영입하여 서기국과 당 부서들을 장악함으로써 그를 과도기적인 인물로 보았던 추측을 불식시켰다.<sup>22</sup> 브레즈네프가 영입

*Party Politics in Czechoslovak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9), pp. 150~163; 소련공산당에 대해서는 William Tompson, *The Soviet Union Under Brezhnev*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pp. 28~30.

<sup>19</sup> 노경덕, “서기국과 스탈린의 권력 장악 문제 -비판적 재검토, 1922-1927-,” 『史叢』 제90호 (2017), pp. 193~199.

<sup>20</sup> William Tompson, *The Soviet Union Under Brezhnev*, p. 15.

<sup>21</sup> Joseph Torigian, ““You Don’t Know Khrushchev Well” The Ouster of the Soviet Leader as a Challenge to Recent Scholarship on Authoritarian Politics,”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24, No. 1 (Winter 2022), p. 92.

<sup>22</sup> William Tompson, *The Soviet Union Under Brezhnev*, pp. 15~17; Harry Gelman, *The Brezhnev Politburo and the Decline of Detente* (Ithaca and London: Cornell

한 부하들 중 안드레이 키릴렌코(Андрей Павлович Кириленко)는 브레즈네프 집권기 대부분 서기국을 장악하여 브레즈네프의 권력 기반으로 삼았으며 그 역할은 1970년대 후반에 콘스탄틴 체르넨코(Константин Устинович Черненко)가 대체하게 되었다.<sup>23</sup>

북한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비서국을 장악하여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해왔다. 조직비서의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지는 북한 내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명확히 규명하긴 힘들다, 하급당 조직비서들의 업무가 총화 내용을 매주 상부에 보고하며 인사 문제의 결재를 해주는 것이라는 점에서<sup>24</sup>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의 경우에는 당 전체의 인사 문제의 관리와 총비서에 대한 보고를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의 위상은 대단히 높은 것으로, 김정일이 1973년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장으로 임명되어 김일성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에 큰 공을 세웠으며, 1974년에 후계자로 내정되기에 이른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은 조직비서로서 김일성에게 가는 모든 보고를 자신에게 먼저 오게 하는 체계를 확립하였다.<sup>25</sup> 황장엽의 경우, 김정일이 조직비서로 임명된 시점에서 권력승계가 완료되었다고 평가했으며, 정성장은 이를 바탕으로 조직비서가 국방위원장이나 군 최고사령관보다 더 영향력 있는, 당, 정, 군의 엘리트 통제를 맡는 직책으로 평가하였다.<sup>26</sup>

이 때문에 김정일은 총비서를 계승하던 순간까지 조직비서 직함을 유지하였으며, 자신이 집권한 후 조직비서는 물론 그 밑의 조직지도부장도 공식으로 두고 다수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함으로 층성 경쟁을 유도했다. 그리고 김정일 특유의 측근정치, 연회정치로 인하여 조선로동당의 제도적 정치 자체가 와해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당의 제도적 기구들은 실무능력을 상실했다.<sup>27</sup> 그러나 그 뒤를 이은 김정은은 명시적인 2인자나 지도적 간부를 내세우지 않으며 궁정정치에 의존했던 김정일과 달리 제도적 정치를 활성화하고 이전에 비해서 2선급 지도 간부들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식이었던 조직

University Press, 1984), pp. 75~76.

<sup>23</sup> Harry Gelman, *The Brezhnev Politburo and the Decline of Detente*, p. 58.

<sup>24</sup>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84;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 206.

<sup>25</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121~123.

<sup>26</sup>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 53.

<sup>27</sup> 이준희, “김정일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기능과 성격 연구,” 『국가전략』, 제29권 4호 (2023), pp. 174~184.



비서도 다시 임명되어, 2017년, 7기 2차 전원회의에서 최룡해를 조직 담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에 임명한 것을 시작으로 리만건, 김재룡을 차례로 기용, 현재의 조용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용원을 김정은의 대리인 중 비서국을 책임지면서 당 사업을 담당하는 인물로 간주할 것이다.

## 2. 연구방법

이상의 전제를 논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용원이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적 경력을 탈북자 증언, 남한 언론 자료, 북한 언론 자료 및 선전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고 북한 언론보도, 특히 조선중앙텔레비죤의 영상분석을 통하여 김정은 체제에서 조용원의 위상과 역할 및 정치적 전망을 분석, 추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부 정치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 조용원의 당내 역할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련의 사례, 그중에서도 브레즈네프 집권 시절 그를 보좌하였던 체르넨코의 사례를 참고하였다.<sup>28</sup> 브레즈네프 체제가 김정은 체제와 같은 수직적인 1인 지배 체제가 아님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다른 인물들, 혹은 스탈린 시대나 마오쩌둥(毛泽东) 시대의 인물과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나, 체르넨코를 주된 참고 사례로 삼은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본 연구가 체르넨코의 정치적 경력과 역할이 조용원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영감을 얻었기 때문이다. 체르넨코는 브레즈네프가 몰다비아 제1서기 당시 선전부장으로 재임하면서 그와 인연을 맺었는데, 1958년, 브레즈네프는 자신이 중앙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그를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로 불러들였고, 자신이 소련 최고회의 상무회 주석이 되자 1960년 5월, 최고회의 상무회 서기장으로 임명했다. 1964년 10월, 브레즈네프가 흐루쇼프를 축출하고 제1서기에 오르자, 체르넨코는 1965년 당내 업무를 관장하는 당중앙위원회 총무부장에 임명되었다.<sup>29</sup> 1966년 4월, 23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에 선출, 1971년 3월, 24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승진하였다. 체르넨코는 총무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당내 조직문제의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브레즈네프는 70년대부터 병환과 약물중독으로 쇠약해져 자주 다차(다차)

<sup>28</sup>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 내부 정치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가운데 사회주의 당-국가체제의 정치적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이며, 비교연구 수준으로 나아가진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sup>29</sup> Susanne Schattenberg, Translated by John Heath, *Brezhnev: The Making of A Statesman* (London: I.B. TAURIS, 2022), pp. 107~108, p. 150, p. 154.

로 은거해야 했는데, 그동안 그에게 외부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맡은 것이 바로 체르넨코였다. 브레즈네프는 체르넨코를 두고 “내 개들 중에서 가장 순종적이고 헌신적인 것은 바로 코스차(콘스탄틴) 체르넨코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말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체르넨코와 상의하였으며 새로 올라 오는 안건들은 체르넨코에게 보냈다.<sup>30</sup> 브레즈네프의 병환이 깊어져 그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면서 그의 체르넨코에 대한 의존은 더욱 심해졌으며 체르넨코는 브레즈네프를 대신하여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sup>31</sup> 이 과정에서 체르넨코의 정치적 지위도 빠르게 상승하여 1976년 3월 전원회의에서 서기국 서기로, 1977년 3월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1978년 11월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위원에 보선되었다. 이는 김정은의 총애로 인해 고속승진을 거쳤으며 당내 조직문제를 담당하던 조용원의 경력 및 업무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

둘째로 다른 북한 인물들의 경우, 자료의 부족으로 수령을 제외한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을뿐더러, 후술하듯이 조용원과 유사한 역할과 지위를 동시에 지녔던 인물을 꼽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다른 북한의 지도간부들과의 비교는 북한 엘리트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가 추가로 진행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스탈린과 마오쩌둥 시기 소련과 중국의 인물들은 몇가지 점에서 조용원과 비교하기 부적절한 면이 있는데, 첫째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혁명 1세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스탈린 시대 제2서기로 공식적으로 당 문제를 관리했던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등의 인물들은 혁명 1세대 지도자들로 스탈린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당내 지도부에 입성했다. 같은 브레즈네프 시기에 체르넨코 이전 서기국의 관리를 담당했던 키릴렌코의 경우를 보더라도, 브레즈네프 집권 이전에 이미 전임 지도자 흐루쇼프의 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조용원의 부상 과정과 큰 차이를 보인다.<sup>32</sup> 중국의 마오쩌둥 시기의 정치국을 담당했던 류사오치

<sup>30</sup> 드미트리 볼코고노프 지음, 김일환 외 5인 옮김, 『크렘린의 수령들(하):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고르바초프』 (서울: 도서출판 한송, 1996),

<sup>31</sup> Susanne Schattenberg, *Brezhnev*, p. 352.

<sup>32</sup> Susanne Schattenberg, *Brezhnev*, p. 53, p. 68, p. 78, pp. 81~83; Nikolai Barsukov, “The Rise to Power,” in William Taubman, Sergei Khrushchev and Abbott Gleason (eds). *Nikita Khrushchev*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 41~42; Nikolai Mitrokhin, “The rise of political clans in the era of Nikita Khrushchev: the first phase, 1953-1959,” in Jeremy Smith and Melanie Ilic (eds). *Khrushchev in the Kremlin: Policy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1953-196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p. 33.

(刘少奇)나<sup>33</sup> 총서기로 마오쩌둥이 자신의 ‘부사령관’으로 일컬었던 덩샤오핑(邓小平)<sup>34</sup> 역시 마찬가지로 혁명 1세대 지도자들이다.

혁명 1세대가 아닌 경우에도, 스탈린 시기, 그의 비서로 정치국의 사업을 조직하면서 조용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sup>35</sup> 알렉산드르 포스크레비셰프(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Поскрёбышев)는 당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했다는 결정적 차이가 있으며, 마오쩌둥 치세 후반기에 그의 수발을 들면서 충애를 얻은 왕둥싱(汪东兴)은 문화대혁명 기간 서기처를 대신하여 기능한 중앙판공청 주임을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그는 마오쩌둥의 경호와 사생활을 보좌하면서 권부에 입성했으며 조용원과 같은 당료가 아니라 공안관리에 해당한다.<sup>36</sup> 따라서 본 연구는 조용원과 경력과 직무 차원에서 가장 큰 유사성을 보인 체르넨코의 사례가 조용원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어 참고 사례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를 시작으로 향후 김정은 체제의 2선급 지도간부들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김정은 체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로 나아가고자 한다.

앞으로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될 것이다. 3장에서 조용원의 정치적 부상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후, 4장에서 조용원의 역할에 대해 추론할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조선중앙텔레비죤의 자료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여 조용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한 후, 이를 크게 김정은의 정치적 비서, 군기반장, 김정은과 당 사이의 연락관 3가지로 나누었다. 우선 정치적 비서와 연락관 역할의 경우 체르넨코가 수행했던 역할을 바탕으로 분류화한 것이다. 군기반장은 조용원이 수령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구인 조직지도부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학술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로운 것임을 밝혀둔다. 이후 조용원의 역할과 위상의 한계에 대해서 논한 다음 결론으로 이어질 것이다.

<sup>33</sup> 조영남,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서울: 민음사, 2019), p. 37.

<sup>34</sup> Alice L. Miller, “Leadership Politics,” in Cheng Li (eds),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p. 65.

<sup>35</sup> Yoram Gorlizki, Oleg Khlevniuk, *Cold Peace: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 160.

<sup>36</sup>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1949~1978』 (서울: 평민사, 2002), p. 248; 로드릭 맥파커, “마오의 후계와 마오주의의 종결 1969~1982,” 로드릭 맥파커 엮음, 김재관, 정해용 옮김, 『중국 현대 정치사: 건국에서 세계화의 수용까지』 (서울: 푸른길, 2012), p. 387.

### Ⅲ. 조용원의 정치적 부상 과정

#### 1. 조용원의 출신 배경

조용원의 출생 배경과 초기 이력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으나, 다만 복수의 정보가 그가 1957년에 태어났다고 밝히고 있다.<sup>37</sup> 또한 지방의 평범한 성분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이공계 분야를 전공했다고 한다.<sup>38</sup> 조용원이 성인이 될 즈음 이었던 1970년대 후반, 김정일은 전문인력 양성을 강조하면서 국내의 이공계 교육 및 수재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수재들을 대상으로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등 명문대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다. 그리고 간부 자녀들에 대한 특혜를 대거 폐지하고 평범한 성분 출신의 유능한 인물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었다.<sup>39</sup> 조용원은 그 혜택을 받은 세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인태의 논문에 따르면 지역당 간부를 거쳐 중앙당 조직지도부로 발탁되었다고 하는데, 북한 간부들이 당중앙위원회 지도원으로 경력을 시작하여 지방당에 재파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개연성이 있는 주장이다.<sup>40</sup> 김정은 시대에도 능력을 입증한 지역당 간부 출신들이 권부에 진출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sup>41</sup>

<sup>37</sup> 영국 재무부의 제재 리스트는 조용원의 여권 정보를 바탕으로 1957년 10월 24일생이라고 기재했다. Office of Financial Sanctions Implementation HM Treasury, "CONSOLIDATED LIST OF FINANCIAL SANCTIONS TARGETS IN THE UK," (2023.8.21.), p. 15,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79636/Democratic\\_People\\_s\\_Republic\\_of\\_Korea.pdf](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1179636/Democratic_People_s_Republic_of_Korea.pdf)> (검색일: 2023.10.19).

<sup>38</sup> 최우석, 北 실세 조용원, 7년 전부터 김정은 特命 전달 역할: "2015년 北 핵심 간부 사이에서 '조용원 많이 컸구나' 하는 이야기 나와," 『월간조선』 2021년 3월호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2103100020>> (검색일: 2023.10.18.); 김인태, "북한의 수령영도체계에 관한 연구 -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p. 203. 1956년 자강도 출신으로, 김일성종합대학 법학부를 졸업했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방의 평범한 출신성분을 지니고 고급 교육을 받은 엘리트라는 기본적인 내용은 일치한다. 이윤걸, "[단독] '등보잡' 조용원 김정은 그림자 수행 핵심 실세 부상 왜?" 『일요신문』, 2017.06.21., <[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4537](https://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54537)> (검색일: 2023.10.18.).

<sup>39</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188~189, pp. 254~255.

<sup>40</sup> 조직과 간부 담당 당료 중에서 도당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로 간부비서 김평해,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 박정순, 조연준 등이 있으며 김평해는 첫 경력을 도당지도원으로 시작하였다.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의 략력," 『조선중앙통신』, 2010.09.29; "보선된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 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 략력," 『조선중앙통신』, 2012.04.11.

<sup>41</sup> 대표적으로 자강도 비서 출신 김재룡, 강원도 비서 출신 박정남, 함경북도 비서 출신 리희용, 함경남도 비서 출신 김능오 등이 지방당에서 경력을 쌓고 책임비서로 승진한 후 중앙으로 진출하였다.

그가 김정일의 본처 김영숙 사이에서 태어난 김설송, 혹은 김춘송의 남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으나<sup>42</sup>, 이를 증명할 수 없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결가지’에 불과한 김정일의 이복형제와 혈연으로 맺어지는 것이 과연 정치적 이점이 될 수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또한, 조용원의 아내는 북한 매체에서 여러 차례 모습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sup>43</sup> 그 존재만으로 수령의 권위를 훼손할 김정은의 이복형제가 공개석상에 나오는 것이 허용될 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조용원의 승진은 김정은과의 인척 관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만 그의 장인이 군 전차교도지도국장 원명균 상장이라는 정보도 있는데,<sup>44</sup> 이 역시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이나, 그가 김정일의 사위라는 주장에 비해서는 신뢰할 수 있다.<sup>45</sup>

조용원이 평범한 성분 출신이라는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데, 메스키타와 스미스의 지적처럼, 독재자들은 자신을 위협할 수 없는 새로운 집단을 측근 세력으로 거느리고자 한다.<sup>46</sup> 이러한 원칙은 북한에서도 적용되는데, 예컨대 김일성은 이미 사망하여 자신의 정적이 될 가능성이 없는 죽은 빨치산의 자녀들을 총애하였으며, 해방 후까지 살아남아 정권 지도부에 합류한 빨치산의 자녀들은 극히 예외적인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정치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sup>47</sup> 김정일 역시 간부선발의 최우선 기준으로 충성심을 강조했다.<sup>48</sup> 이러한 면에서 조용원의 발탁은 그의 소박한 출신배경 덕분에 가능했을 수도 있다.

## 2. 정치적 성장 과정

본 연구에서 확인한 조용원이 공개석상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시점은 2010년 9월, 조선로동당 제3차 대표자회이다. 당시 김정일을 대신하여 군사 문제를 전담

<sup>42</sup> 안찬일, 강철환 등이 유튜브를 통해 이러한 주장을 하였으나 현재는 영상을 삭제한 상태다.

<sup>43</sup> “2022년 3.8국제부녀절기념 승마경기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2.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책임일군들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의 주민치료에 필요한 의약품 기증,” 『조선중앙통신』, 2022.6.17.

<sup>44</sup> 이영중, “김정은 2인자는 없다는데…‘좌’용원 ‘우’용해 운명은,” 『중앙일보』, 2021.02.1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76996?sid=100>> (검색일: 2023.10.19.).

<sup>45</sup> 황장엽에 따르면 간부 집안끼리의 결혼은 금기시되는데, 조용원이 정말 장령의 사위라면 역설적으로 그가 간부 집안 출신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황장엽, 『황장엽 비록 공개: 여둠의 편이 된 햇볕은 여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pp. 137~138.

<sup>46</sup> 브루스 부에노 데 메스키타, 알라스테어 스미스 지음, 이미숙 옮김, 『독재자의 핸드북: 사상 최악의 독재자들이 감춰둔 통치의 원칙』,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p. 120.

<sup>47</sup> 이준희, “조선로동당 정치국 변화 연구 -운영 방식 및 구성원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pp. 138~139.

<sup>48</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p. 178~180.

하면서 후계자로의 권위를 구축해 가던 김정은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선출되면서 김정일의 후계자로 공식 선포되었다. 당시 그의 곁에는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지지해 온 현철해와 더불어 박태성과 조용원이 배석해 있었다.<sup>49</sup> 이는 조용원이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기 이전부터 그를 보좌해 온 인물임을 드러내는 증거이다. 태영호는 조용원이 김정은이 후계자로 낙점된 후 그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눈에 들었다고 증언하였다.<sup>50</sup> 조용원이 김정은의 제1비서 승계를 즈음하여 2012년 4월, 향후 김정은 체제 핵심 권부로 진입하게 되는 여러 인물과 함께 북한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은 것은<sup>51</sup> 집권 이전 그와 김정은의 관계를 드러내는 또 다른 증거로 해석된다. 조용원은 김정은이 제1비서로 추대된 4차 당대표자회에서도 김능오, 정상학 등 조직지도부 부부장들과 함께 참석하였다.<sup>52</sup> 이를 바탕으로 유추한다면 조용원은 김정일의 1970년대 후반 엘리트 정책의 수혜를 입은 ‘김정일 키드’로, 실력을 바탕으로 중앙에 진출하여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보좌해 온 김정은 집권 공신 중 한 명으로 추정된다.

4차 당대표자회 이후 조용원은 2014년 12월 사이까지 3년이 가까운 기간 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의 활동과 급속도의 승진 속도를 보면 물밑에서 여러 활약을 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김일성훈장 수훈자 명단을 제외한다면, 조용원의 이름이 최초로 북한 매체에서 언급된 것은 2014년 12월, 김정은의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자격으로 수행한 때로부터였다.<sup>53</sup> 이는 김정은 집권 초기 김정은을 면밀히 수행하였던 또 다른 측근 박태성이 2014년 4월, 평안남도 책임비서에 임명된 직후의 일이었다. 순수한 추측의 영역이지만, 기존에 김정은을 보좌하던 박태성이 지방당에 파견되면서 그 역할을 조용원이 담당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부터 조용원이 김정은의 명령 출납을 담당했다는 증언도 있으며<sup>54</sup> 태영호가 그를 북한의 실세로 지목한

<sup>49</sup> “〈조선기록영화〉 빛나는 삶의 품(32):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 『조선중앙텔레비죤』, 2022.06.12.

<sup>50</sup> 손재호, “베일 속 ‘김정은의 남자’ 조용원…태영호 “매일 보고하며 눈도장,” 『국민일보』, 2021.04.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32256?sid=100>> (검색일: 2023.10.18).

<sup>51</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6호: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 크게 기여한 단체와 인민군군인들, 일군들에게 김일성훈장을 수여함에 대하여,” 『로동신문』, 2012.4.10.

<sup>52</sup> “〈조선기록영화〉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조선중앙텔레비죤』, 2012.04.15.

<sup>53</sup>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14.12.16.

것도 이 시점이다.

이후 김정은을 수행하는 빈도가 부쩍 높아진 조용원은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으며<sup>55</sup>, 특히 당대회 중에 주석단에 포함되고 김정은과 면밀히 소통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받았다.<sup>56</sup> 사회주의권의 주요 당 회의에서 착석 서열이 매우 중요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수령의 최측근이 수령과 긴밀히 협의하기 위해서 당내 서열을 무시한 좌석 배정을 받기도 한다는 사실은 과거 강석주의 사례에서 확인된 바가 있다.<sup>57</sup>

이후 ‘김정은의 그림자’로서 활동하던 조용원은 2019년부터 급속도의 승진을 거쳤다. 2019년 4월, 중앙위원회 7기 4차 회의에서 조용원은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임명되었다. 조용원의 승진과 더불어 기존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대부분이 교체되었는데, 군사 담당 제1부부장 김경옥이 은퇴하고 새로 김조국이 임명되었으며, 조연준은 당 검열위원장으로 이동하였다가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완전히 은퇴하였다. 2020년 이후 리히용과 천태길이 새로운 제1부부장으로 임명됨으로 김정일이 발탁한 제1부부장들은 짧은 기간 사이에 모두 김정은이 새로 발탁한 인물들로 교체되었다. 이는 조용원의 승진이 김정일 세대의 은퇴와 김정은 세대로의 교체와 맞물린 조치인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간부 대오의 세대교체는 조선로동당 7기 중앙위원회의 특징이기도 하였는데, 7차 당대회 시점에서는 조선로동당 정치국과 중앙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의 노간부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 와중에 김정은이 발탁한 신진 간부들이 서서히 영입되고 있었으나,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한 세대교체로 김정일 시대의 원로들은 대부분 은퇴하고 대부분 신인으로 교체되었다. 이는 김진하의 평가처럼 김정은에게 승진을 빛진 친위세력들을 영입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한 친위체제를 구축하려는 정권 안정화 전략의 일환이라고 하겠다.<sup>58</sup>

<sup>54</sup> 최우석, “北 실세 조용원, 7년 전부터 김정은 特命 전달 역할.”

<sup>55</sup> 당중앙위원회 인선이 이루어진 4차 당대표자회와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 혹은 후보위원에 보선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인선 명단이 없는 이상 확인할 수 없다.

<sup>56</sup> 윤완준, “김정은과 귀엣말… 新실세 조용원,” 『동아일보』, 2016.05.09.,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60509/77988381/1>> (검색일: 2023.10.18).

<sup>57</sup>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pp. 76~78.

<sup>58</sup> 김진하,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권력집중 전략,” pp. 69~70. 다만 구세대들이 ‘숙청’됐다는 김진하의 평가는 재고가 필요하다.

### 3. 최고지도부 입성

2년이 채 되지 않은 2021년 1월, 조용원은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파격적으로 승진하였다. 8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치국원 중 상당수가 파격 승진의 경험자들이었으나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로 단숨에 진입한 것은 조용원이 유일하였다. 그리고 8기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구성 역시 주목해야 하는데, 조용원과 더불어 김덕훈은 김정은이 육성한 대표적 인물 중 한 명이며 그 역시 파격적인 고속 승진을 경험하였다. 리병철과 최룡해는 김정은 집권 이전에 이미 고위직에 올랐으나, 이들을 권력 최상부로 영입한 것은 김정은이었다.<sup>59</sup> 8차 당대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과 조용원의 정치국 진입은 김정은이 직접 발탁한 친위세력으로 당과 정부의 최고 수뇌부가 완전히 교체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용원은 김재룡의 후임으로 조직비서에 선출됨으로 비서국에 진입하였다.<sup>60</sup> 8차 당대회에서 비서국은 ‘당내부사업에서 나서는 문제와 그 밖의 실무적문제들을 수시로 토의결정하고 그 집행을 조직지도’ (당규약 제3장 제29조)한다고 그 권능이 구체화되었으며, 그 규모가 7차 당대회 시점보다 축소되는 한편 구성원 전원이 정치국 상무위원, 정위원으로 구성되는 등 위상이 이전에 비해서도 높아졌다. 그러한 비서국에 조용원이 입성한 것, 특히 조직비서 자리를 맡은 것은 조용원이 비서국 내부에서 김정은의 유일영도체계를 뒷받침하는 임무를 맡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는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출되었는데, 4장에서 후술할 것이지만 군사 경력이 없는 그가 군사위원이 된 것은 군에 대한 김정은 영도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매우 파격적인 승진 속도도 이례적이거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모두 소속된 것 역시 주목할 점이다. 과거 김정일이 6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모두 선출된 점을 두고 그의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해석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조용원이 김정은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 하겠다. 이후 2021년 9월 열병식에서는 사열 보고를 맡는 등 당 간부로서는

<sup>59</sup> 이준희, “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pp. 43~45.

<sup>60</sup> 일부 언론이나 연구에서 8차 당대회 이후 조용원의 직함을 조직비서 겸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당 부서들을 관할하는 당비서가 부장을 겸하는 일은 있어도 제1부부장을 겸하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된다면 당비서가 당 부장의 상급자이면서 동시에 하급자인 이상한 상황이 된다. 조용원은 부장보다 상위의 직무인 조직비서로 영전하면서 당연히 제1부부장 직무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리히용, 천태길 등 새로운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들이 임명된 점으로도 뒷받침된다.



파격적인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이후로도 조용원의 지위 상승은 이어져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의 14기 5차 회의에서 헌법상 ‘국가주권의 최고정책적지도기관’으로 규정된 국무위원회 위원에 보선되었으며, 2022년 6월, 8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직지도부장을 겸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직지도부장을 조용원이 겸한 것이 그의 지위 상승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볼아야 한다. 8차 당대회 이후 비서국의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비서들이 부장을 겸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 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정무국 부위원장들 중 최룡해, 광범기를 제외한 부위원장 전원이 당 부장을 겸직하였으나, <표 1>에서 나와있듯이 8차 당대회 이후로는 경제비서를 제외하면<sup>61</sup>, 당 비서와 부장 인선이 분리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조용원의 조직지도부장 겸직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표 1> 8차 당대회 이후 주요 당부장 인선 변동 현황

직책	보임자
군수공업부장	리병철 겸임 → 유진(2021.9) → 조춘룡(2022.6)
근로단체부장	리일환 겸임 → 리두성(?)
선전선동부장	박태성 겸임 → 주창일(2021.6?)
과학교육부장	최상건 겸임 → 태형철 겸임(2021.6) → 리충길(2022.6) → 최동명(2023.2)

출처: 조선중앙통신을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

7기 정치국 말기와 8차 당대회에서의 비서국의 규모 축소, 8차 당대회 이후 당 내 인선과 당 비서들의 행보를 종합해본다면 조선로동당 비서국 내부의 업무 분담이 계속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가령 선전선동 담당비서와 근로단체 담당비서를 각각 박태성과 리일환이 맡았으나 박태성의 해임 이후 리일환이 선전선동과 근로단체를 모두 관할하게 되었다. 리일환은 명백히 재조정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다. 리병철의 경우에는 군수공업과 군정을 모두 관장하였으나 업무가 분담되어 리병철이 독점했던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위가 2개로 늘어나는 한편<sup>62</sup>, 군정 담당 비서가 분리되었으니 재조정의 피해자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조용원은 재조정의 수혜자일까, 피해자일까?

<sup>61</sup> 8차 당대회 이후 임명된 김두일, 오수용, 전현철은 모두 경제부장을 겸하였다.

<sup>62</sup>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2.06.24.

당 비서와 부장의 겸직에 대하여 황장엽은 ‘당비서가 부장을 겸하는 경우는 해당 비서가 관장하는 당부서가 하나밖에 없을 때’라고 증언한 바가 있다.<sup>63</sup> 이 말에 따르면 조용원의 조직지도부장 임명은 그가 조직비서로서 관할하는 부서의 수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6월을 전후로 조선로동당이 실시한 인선, 기구적 개편을 보자. 당비서 겸 중앙검사위원장 정상학이 은퇴<sup>64</sup>, 조직지도부장 김재룡으로 교체되었고, 정치국에서 간부부장 허철만이 탈락하였으나 후임 간부부장이 임명되지 않고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리히용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보선되어 정치국 내부에서 조직지도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간부부의 경우, 허철만이 탈락한 이후 1년 이상 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순히 인사 교체에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서 자체가 폐지되었을 가능성이 커졌다.<sup>65</sup> 이런 변화로 미루어 보건대, 8차 당대회 시점에서 조용원은 조직지도부, 간부부 등을 관할했으나 조직지도부가 간부부의 업무를 흡수하면서 조용원이 관할하는 부서가 조직지도부 하나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김재룡이 당중앙검사위원장으로 이동하는 한편, 조용원이 부장을 겸직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이렇게 된다면 조용원의 권한이 강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중앙검사위원회와 중앙검찰소의 강화, 군정지도부, 규률조사부, 법무부의 신설 등은 더 이상 조직지도부가 당내에서 통제, 감시 기능을 독점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1948년 2차 당대회 이후로 당의 재정 문제를 담당하는 미약한 기관으로 남아있던 당중앙검사위원회가 8차 당대회에서 무려 70년 만에 당의 재정권과 검열권을 모두 장악한 강력한 기구로 복귀하게 되면서 비서국 내부에서 조용원은 통제, 감시 권한을 당중앙검사위원장 겸 비서와 분담하고 있으며, 제5차 보위일군대회를 박정천이 지도했다는 점은<sup>66</sup> 군정 담당 비서와도 분담하고 있음을 보

<sup>63</sup> 황장엽, 『어둠의 편이 된 햇별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pp. 95~96. 그러나 리병철이 군수공업 담당 비서와 군정 담당 비서가 분리되기 이전에 군수공업부장을 겸직하고 있었던 점을 볼 때 황장엽이 증언한 내용을 절대적 원칙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둔다.

<sup>64</sup> 정상학의 은퇴는 2023년 7월, 소위 ‘전승 70주년’ 행사에 정상학이 노간부로 참석하면서 확인되었다. “〈록화실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7.29.

<sup>65</sup> 다만 김정은이 간부부장으로 적당한 인물을 장기간 선발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 이준희는 군정지도부장 오일정이 해임되고 후임 부장이 임명되지 않은 점에서 군정지도부의 축소, 해산 가능성을 제기한 바가 있으나 2023년 8월, 박정천이 후임 군정지도부장에 임명됨에 따라 군정지도부가 해산되었다는 추측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준희, “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p. 59.

<sup>66</sup> “제5차 보위일군대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회참가자들에게 강령적인 서한을 보내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2.11.25.

여준다. 즉 김정은은 조용원의 권위를 높여주었으나 그가 칼자루를 독점하게 허용하지 않았다. 8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보좌하는 규률조사부, 중앙검찰소 등 조직지도부 외의 조직들 역시 강화하고 있다.<sup>67</sup> 조용원이 조직지도부장을 겸임한 것이 그의 권위 상승을 의미하는지 제한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나, 이상의 사실들을 볼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조용원을 견제하는 조치 역시 분명히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조용원의 조직지도부장 임명은 그의 권한을 조직지도부 내부로 국한시키려는 의도로도 해석할 수 있다.

## IV. 조직비서 조용원의 역할과 위상 분석

### 1. 조용원의 역할 분석

4장에서는 조직비서 조용원이 2장에서 언급한 ‘김정은의 당내 대리인’으로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용원의 행보에 관련된 보도자료 및 체르넨코의 사례를 종합, 분석한 결과 2장 2절에서 밝혔듯이 크게 1. 김정은의 정치적 비서, 2. 군기반장, 3. 김정은과 당 사이의 연락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3가지 역할 모두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반영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전의 북한정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보인다. 이 중에서 김정은의 정치적 비서와 연락관 역할의 경우 중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정치적 비서 역할의 경우, 김정은이 일선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 두드러지는 역할이나, 연락관의 경우 김정은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을 때 부각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여기고 별개의 역할로 나누었다.

#### 가. 김정은의 정치적 비서

우선 김정은의 비서 역할은 조용원이 조직비서 임명 이전부터 수행하던 것이며, 조직비서 임명 이후에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김정은 현지도도를 대부분

<sup>67</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2.06.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06.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7차전원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08.31.

동행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반대로 <표 2>에 나와 있듯이 조용원은 김정은 없이 단독 행보를 보이는 일도 드물었는데, 조용원이 김정은 없이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모두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전원과 참석한 행사들이거나 김정은이 정치국 위원들을 여러 행사에 동시에 파견한 경우였다.<sup>68</sup> 이는 김덕훈, 최룡해 등이 단독 현지료해 업무를 자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해서 큰 차이이다.

<표 2> 2023년 9월 현재 조용원의 단독 행보 목록

일시	행사명
1.10-1.13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들과 함께 각 도당 전원회의 지도.
1.15?	정치국 상무위원, 위원들과 함께 각지 공장들 방문.
2.5	8기 13차 정치국 회의 사회.
3.1	8기 14차 정치국 회의 사회.
5.19	현철해 원수 1주기 추모대회 참석.
6.18	8기 15차 정치국 회의 사회.
9.8	정권 창건 75주년 경축 청년전위들의 햇불야회 참석.

출처: 『조선중앙통신』 기사를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

조직비서 임명 이전에도 조용원은 각종 문건을 들고 김정은을 수행하며 주요 회의에 참석하곤 했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 4월 정치국 회의에 문건을 들고 방청 자격으로 참석했으며,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시절인 2019년 12월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3차 확대회의에서 임명장을 가지고 있다가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맡았다. 조직비서로 승진한 후에도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승진한 장령들의 임명장을 김정은에게 건네주는 등 문건을 관리하는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 바가 있다.<sup>69</sup> 조직비서로 승진한 후에는 그의 역할이 더욱

<sup>68</sup> <표 2>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조용원은 이례적으로 2023년 12월 23일, 내평3호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는데, 이 시기에 김덕훈, 최룡해, 리일환, 김재룡, 박태성, 박정근, 한광상 등 정치국의 주요 성원들 대부분이 지방의 행사에 파견되었으며 김재룡 등 조용원과 마찬가지로 단독 행사를 수행하지 않는 인물들도 파견되었다. “개건현대화된 평양가족이김공장 준공,” 『조선중앙통신』, 2023.12.22; “룡강석재가공공장 준공,” 『조선중앙통신』, 2023.12.23; “은산탐사기계공장 새로 건설, 준공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12.23; “내평3호발전소 준공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12.24; “대중급양봉사기지인 평남면옥 훌륭히 개축,” 『조선중앙통신』, 2023.12.24; “홍남제약공장 의약품 2계열생산공정 현대화대상 조업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12.24.

<sup>69</sup>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가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텔레비죤』, 2018.04.10;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3차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지도,” 『조선중앙텔레비

확대되어 단순히 회의에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회의 중 김정은의 지시를 받거나 그와 긴밀히 의논할 정도이며<sup>70</sup> 김정은이 참석한 상태에서도 대리하여 주요 보고를 맡거나 당중앙위원회 명의를 감사문을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sup>71</sup> 밑에서 자세히 설명할 정치국 회의 사회 사례 중에서도 8기 17차 정치국 회의에서는 김정은이 참석하였음에도 그를 대리하여 정치국 회의를 사회하는 등<sup>72</sup> 각종 보고와 당내 행정 문제를 맡고 있음이 드러난다. 반면 김정은이 그의 보좌가 필요하지 않은 행사에선 조용원의 불참이 두드러졌는데 가령 군사, 외교, 최고인민회의 관련 행사들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조용원이 김정은의 비서로서 두드러진 활동을 하는 것은 이전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김정일의 경우, 자신에게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이 있으니 정책서기가 필요 없다고 발언한 바가 있으며<sup>73</sup> 당중앙위원회 비서, 당 부장들이나 신입하는 여러 간부들에게 보좌 업무를 분담하였고, 그의 정치는 특정 인물이 두드러진다고 보단, 그의 측근들이 그를 둘러싼 궁정정치에 가까웠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에 대한 정책적 보좌를 더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정례화와 그 산하 정책별 부문위원회들의 조직, 당 결정을 종합하기 위한 전원회의 소집 중의 정치국 회의 소집의 정례화<sup>74</sup>, 당중앙위원회 경제정책실을 비롯한 제도적 보좌기구의 설치 등이 그 증거이다. 이러한 보좌가 필요한 분야에는 당연히 조용원이 담당하는 정치, 당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존, 2019.12.2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1차확대회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확대회의 지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1.02.25.

<sup>70</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2.06.11; “조선로동당 비서국 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텔레비죤』, 2022.06.28;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3.0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6.19.

<sup>71</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3.06.19;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3.07.28.

<sup>72</sup>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7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3.12.02.

<sup>73</sup>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p. 228.

<sup>74</sup> 이전에는 전원회의 소집 전날에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여 결론을 미리 내리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8기 중앙위원회에서는 전원회의 도중에 정치국 회의를 소집해서 각 부문별 위원회가 내린 결론을 종합하는 매우 체계적이고 관료적인 체계가 확립되고 있다.

## 나. 군기반장

조직비서 승진 이후 새로 드러나는 역할은 간부들을 비판, 처벌하는 ‘군기반장’ 역할이다. 조직비서 임명 직후인 2021년 2월, 8기 2차 전원회의에서 조용원은 김두일 경제비서를 혹독하게 질책했으며, 무능한 간부들을 반당, 반인민분자로 간주하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였다.<sup>75</sup> 2021년 6월, 리병철, 박정천, 김정관, 최상건이 큰 비판을 받고 해임되었던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자료 보고를 맡고 강력한 비판을 한 것도 조용원이었다.<sup>76</sup> 조용원의 역할이 정확히 보도되진 않았으나, 김정은이 간부들의 사업 태도에 대해서 불만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지시했던 2022년 9월,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와 2023년 8월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 태풍 피해 현장과 안석간석지 피해복구 현장에도 조용원이 동행한 점을 볼 때, 관련한 자료 보고와 후속 조치 역시 조용원이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sup>77</sup> 이러한 ‘군기반장’의 역할은 김정은이 간부들을 길들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인 조직문제에 필요한 정보의 공급과 그 실행을 조용원이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김정은의 권위와 지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기반장 역할의 경우에도, 조용원 이전에도 관련한 업무를 맡은 간부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비서와 마찬가지로 이 역할은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았으며, 김정일은 조직비서, 조직지도부장, 국가안전보위부장 등의 요직은 아예 공석으로 남겨두고, 조직지도부의 경우 여러 제1부부장 대행 체제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김정일을 대신하여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보도된 일은 없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과오를 범한 간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 처벌하는 사례들이 자주 확인되고 있으며, 따라서 조용원으로 대표되는 ‘군기반장’ 임무를 수행하는 간부들의 존재 역시 이전에 비해 두드러지고 있다.

<sup>75</sup> “당중앙위원회 비서 조용원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2021.02.11.

<sup>76</sup> 다만 이날 비판에는 조용원뿐만 아니라 김재룡, 정경택, 리영길, 심지어 현승월 부부장을 비롯한 다수의 간부가 참여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이는 3장 3절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김정은이 조용원에게 권한을 독점시키지 않으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sup>77</sup> “국가재해방지사업총화회의의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2.09.06;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원도 안변군 오계리일대의 태풍피해현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3.08.1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3.08.22. 특히 안석간석지 현지지도의 경우, 텔레비전 방영분에서 김정은이 조용원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지시하는 사진이 따로 보도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안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안석간석지 피해복구현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8.22.

## 다. 김정은과 당 사이의 연락관

마지막으로 조용원이 김정은과 당 사이의 연락 및 당의 관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조용원이 김정은이 불참한 정치국 회의의 사회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제일 극명히 드러난다. 그는 8차 당대회 이후 2023년 12월 기준으로 무려 6차례나(8기 9차, 8기 10차, 8기 13차, 8기 14차, 8기 15차, 8기 17차) 정치국 회의를 사회하였다. 이는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 제3장 제28조에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에게 총비서를 대신하여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권한을 준 것을 활용한 것이다. 또한 이 회의들은 모두 주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원회의 소집, 전원회의 결정서 초안 작성 등 사무적인 것들을 다뤘는데, 여기서 조용원의 업무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지시의 전달과 집행을 감독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조용원은 2021년 2월 27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2일 차 회의 및 4월 7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2일 차 회의를 지도하기도 하였고<sup>78</sup>, 2022년 7월,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에서는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 사업총화보고를 제기, 실무강습을 지도하는 듯한 사진이 따로 보도되기도 하였다.<sup>79</sup>

특히 수령과 당 사이의 연락관은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 이후에는 김일성 시대의 김정일을 제외한다면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역할이다.<sup>80</sup> 김정은이 조용원에게 정치국 회의의 사회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크게 주목할 만한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매우 두드러진 정치적 특권이다. 브레즈네프 이후 소련에선 후대 서기장 후보들이 정치국 회의를 사회하였고, 중국에서도 마오쩌둥 시대에는 후계자 위치에 있던 류사오치가, 그가 숙청된 후에는 2인자인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주재하였다. 북한에서도 김정일이 실권을 장악한 후 그가 정치국 회의를 준비, 지도하였다.<sup>81</sup>

<sup>78</sup> “조선로동당 제2차 초급당비서대회 2일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1.02.28; “조선로동당 제6차 세포비서대회 2일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이 회의 지도,” 『조선중앙통신』, 2021.04.08.

<sup>79</sup> 조선로동당 각급 당위원회 조직부 당생활지도부문일군 특별강습회 진행: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강습회를 지도하시였다, 『조선중앙통신』, 2022.07.07.

<sup>80</sup> 김정은 역시 김정일 말기에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이나 알려진 정보가 부족하고 그의 후계자 기간이 매우 짧았기에 일단 제외하였다.

<sup>81</sup> 리동구, 『비약의 나라』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pp. 17~24;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중앙당상임위원회 편, 『위인실록 김정일장군(1)』 (도쿄: 조선신보사, 1997). pp. 93~96.

이 역시 2020년대에 들어서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크게 줄이고 정치국 회의도 불참하면서 주요 당 회의에서 연설이나 보고 역시 부하들에게 위임하는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2장 2절에서 논한 브레즈네프-체르넨코의 사례를 미루어 볼 때 지도자가 전면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내에서 그를 위하여 보고와 연락을 맡은 인물이 있어야 하며 그 역할은 조용원이 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가 조직비서에 임명되면서 당규약상 정치국 회의를 사회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최고지도부에 입성한 것은 브레즈네프가 체르넨코를 필요로 하면서 그를 급속도로 승진시킨 것을 연상시킨다.

김정은이 조용원에게 파격적으로 승진시킨 것에 더해 이색적인 역할을 부여한 것은, 3장 1절에서 설명하였듯이 김정은을 위협할 수 없는 그의 출신 배경과 더불어 후계자 시절의 김정은을 모신 그의 경력 등이 큰 자산으로 작용했을 것이나 그의 처세술 역시 큰 자산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김정은은 자신이 신임하는 부하라 할지라도 과오를 저지르면 가차없이 처벌하였는데,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을 수행한 박태성과 박정천은 2차례나 해임된 적이 있으며, 김덕훈, 리병철 등의 핵심 간부들도 공개적인 비판을 당했다.<sup>82</sup> 그런데 조용원은 2023년 현재 한 번도 강등, 해임이나 공개 비판을 겪은 적이 없다. 이는 그에 대한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 그리고 조용원의 능력과 능란한 처세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조용원의 위상과 역할의 한계

### 가. 전문성과 경력상의 한계

그렇다면 조용원은 북한의 모든 정책에 관여할까? 조용원의 직책을 볼 때 그가 주로 조직문제를 담당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 외의 분야에도 일부 관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는 그가 김정은의 경제단위와 군수공장,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현지도에 동행하고 있음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며,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공업, 당 및 근로단체, 농업 부문 협의회를 다양하게 지도했다는 점에서 조직 문제 이외의 분야에도 개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농업 부문의 개입이 두드러졌다.<sup>83</sup> 하지만 조용원의 행보 및 경력

<sup>82</sup> 이준희, “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pp. 56~57.

<sup>83</sup> 보도에서 그가 정확히 무슨 협의회를 맡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농업부장 리철만, 부총리 겸 농업위원장 주철규와 함께 회의를 지도한 점에서 농업분과 협의회가 확실하다. “〈조선기록영



상 특징을 분석한다면 그의 정책적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생각된다. 2023년 이후를 기준으로 조용원은 김정은의 군사, 과학, 외교 분야 행보에 불참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특히 군사 분야에서의 불참이 두드러졌다. 조용원이 동행하지 않은 주요 행사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표 3> 2023년 9월 20일 현재 조용원이 불참한 2023년 김정은 주요 참석 행사 목록

일시	행사
3.9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 화력습격훈련 현지지도
3.18-3.19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현지지도
3.27	핵무기병기화사업 현지지도
4.10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
4.18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5.19	현철해 묘소 참배
7.25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참배
8.11-8.12	주요군수공장 현지지도
8.20?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 시찰
8.27	해군절 기념 해군사령부 방문
8.29	총참모부 훈련지휘소 현지지도
9.6	핵잠수함 김군옥영웅함 진수식
9.10-9.20	제2차 북러정상회담

출처: 『조선중앙통신』을 종합하여 필자가 작성.

※ 김정은이 주요 간부들을 동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참가한 행사나, 기념사진 촬영 등은 제외했다.

비록 조용원은 군사위원 직함 및 최소 상장의 군사칭호를 가지고 있으며<sup>84</sup>,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계속 참석하고 있으나 군사적 실무 논의가 시작되면 퇴장하였다.<sup>85</sup> 특히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하여 순수 군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하였

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 『조선중앙텔레비죤』, 2021.06.20: “〈조선 기록영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2.01.0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1.0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6.19. 8기 2차 전원회의에서는 김덕훈과 함께 경제 관련(공업으로 추정) 협의회를 지도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1.02.13. 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리히용이 농업 협의회를 지도했으며 조용원은 선전선동부장 주창일과 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어떤 협의회인지는 불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2.06.11.

<sup>84</sup> 조용원이 상장 군사칭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2020년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확인되었다. “〈록화실황〉 조선로동당창건 75돌경축 열병식, 『조선중앙텔레비죤』, 2020.10.10.

던 8기 6차 확대회의에는 아예 불참하기도 했다. 그 외에 군수공장 및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에 불참하였으며, 2023년 9월 북러정상회담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는 조용원의 영향력이 군사, 과학, 외교 분야 등에서는 제한됨을 시사한다. 즉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그가 개입할 수 있는 정책이 제한된다는 소리인데, 체르넨코의 경우에도 외교 정책 결정에는 거의 개입하지 못했으며 1979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도 외무상 그로미코(Андрей Андреевич Громыко), 국방상 우스티노프(Дмитрий Фёдорович Устинов), KGB 주석 안드로포프(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Андропов) 트로이카가 정책결정을 독점했다.<sup>86</sup>

다만 외교에 있어서는 조용원이 2018년 3월, 김정은의 비공식 중국방문,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2019년 1월 북·중 정상회담, 2019년 3월 하노이 회담, 2019년 4월 1차 북러정상회담, 2019년 6월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등 다수의 정상회담을 수행한 경력이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sup>87</sup> 과거에 활발했던 조용원의 정상회담 수행이 조직비서 임명 이후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2023년 9월 현재 김정은이 가진 정상회담이 북러정상회담 하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향후 이루어질 김정은의 외국 순방 사례들이 더 누적되어야 제대로 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조용원의 전임 조직비서들인 최룡해, 김재룡 등이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볼 때 조용원이 조직비서로 임명되면서 자리를 비운 김정은을 대신하여 내부 관리 임무에 더 집중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에 조용원이 동행한 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은은 김영철, 리영호, 최선희 등과 의논하는 모습을 주로 보여

<sup>85</sup>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 소집,” 『조선중앙통신』, 2022.06.22;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 2일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 2022.06.23;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22.06.24;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7차확대회의 진행,”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8.10.

<sup>86</sup> Artemy Kalinovsky, Decision-Making and the Soviet War in Afghanistan: From Intervention to Withdrawal,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ume 11, Number 4, Fall 2009, pp. 48~51.

<sup>87</sup> “〈조선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 2018.03.29; “〈조선기록영화〉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인 만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상봉,” 『조선중앙텔레비죤』, 2018.04.30; “〈조선기록영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 2019.01.12; “〈조선기록영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시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 2019.03.07; “〈조선기록영화〉 조로친선의 새시대를 펼친 력사적인 상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을 방문,” 『조선중앙텔레비죤』, 2019.04.28;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중앙텔레비죤』, 2019.07.02.

졌으며, 조용원은 정상회담 관련 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용원의 이전 정상회담 수행 역시 외교 업무를 수행했다기보단 김정은의 비서로 동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또 다른 단서는 조용원의 경력이다. 그는 당중앙위원회, 그중에서도 조직 부문에서만 경력을 쌓았다. 무력기관, 일선 경제단위나 내각이나 ‘당의 축소판’으로 규정된<sup>88</sup>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재직할 경험도 없다. 이는 그에게 그럴 기회가 없었다기보단 김정은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새로운 인물들을 발탁하면서 이들에게 지방당이나 내각에서 중책을 맡겨 경험을 쌓게 한 후 빠르게 중용하였는데, 정치국 입성자를 기준으로만 따져도 박태성, 김두일, 김영환, 리히용, 김능오, 리철만 등을 지방당책으로 임명한 후 다시 중앙당으로 불러들였으며, 김덕훈, 리철만, 전현철, 전광호는 내각 부총리로 배치하여 경제 실무를 익히게 한 다음 중앙당으로 기용했다.<sup>89</sup>

하지만 김정은은 조용원을 중앙당 밖에서 경험을 쌓게 하지 않았다. 또한 조용원은 대부분의 김정은 정권의 지도 간부들과 달리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겸하지 않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의 회의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2019년 헌법개정으로 김정은 스스로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겸하지 않고,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위한 짧은 방문을 제외하면 잘 참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점으로 생각된다.<sup>90</sup> 조용원의 이러한 경력상 특징은 김정은이 당 사업 외의 분야에는 종사시킬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앞서 언급한 조용원의 다른 정책분야에 대한 개입도 그의 전문성과 무관한 당적 지도의 차원에서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 나. 다른 북한 엘리트들과의 비교

한편 2장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김정은은 조용원 이외에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비서국에 김덕훈, 리병철, 박정천 등 다른 ‘대리인’들을 배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조용원은 다른 ‘대리인’들과 비교해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압도적인 지위를

<sup>88</sup> “[사설] 당중앙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데서 도당위원회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로동신문』, 2023.01.29.

<sup>89</sup> 김덕훈은 내각총리로 임명되기 이전 8개월 동안 당부위원장 겸 경제부장으로 중앙당에서 근무했다.

<sup>90</sup> 김정은은 최고인민회의의 14기 4차, 6차, 8차 회의는 불참했으며, 14기 5차 회의, 7차 회의, 9차 회의에서는 연설만 하고 바로 퇴장했다.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 앞서 언급한 조용원의 특별한 위상을 드러내는 정황과 더불어, 객관적으로 조용원에게 유리한 상황들이 조성되어 있다. 우선 조용원은 북한 권력의 기반이며 군과 정부를 감독하는 당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조용원이 담당한 조직지도부는 검열, 인사 문제를 모두 장악한 ‘당 중의 당’으로 불리는 가장 강력한 권력 기구이기 때문에<sup>91</sup> 조용원은 정보의 수집과 자원의 동원에 있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른 대리인들에 대한 견제 역할 역시 그가 수행하고 있다. 공식 서열에 있어서도 2023년 현재 김덕훈 총리를 제외하곤 언제나 서열 1위를 기록하고 있다.<sup>92</sup>

2023년 현재 김정은 체제의 주요 간부들의 대다수가 김정은에게 승진을 빚진 고속 승진자들이라는 사실도 조용원에게 유리한 점이다. 브레즈네프 시기 말기 체르넨코는 소련의 국정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하여 브레즈네프의 후계자로 거론되었으나, 체르넨코는 당무를 제외한 그 어떤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갑작스러운 승진은 오로지 브레즈네프의 총애로 인해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승진은 다른 정치국원들의 분노를 야기했으며 실무 경험이 풍부하여 군과 KGB의 지지를 받는 안드로포프의 영향력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sup>93</sup> 중국에서도 마오쩌둥 사후 건국 1세대 원로들은 마오쩌둥의 총애를 바탕으로 권력 최상층부에 진입한 화궈펑(华国锋)과 왕둥싱을 마오쩌둥의 ‘고급 시종’으로 보며 복종하길 거부했다.<sup>94</sup> 그러나 북한에선 이러한 사유로 조용원을 견제할 집단은 모두 은퇴한 상태이며 김정은의 주도로 재구성된 지도부에서 조용원의 고속승진은 큰 약점으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용원을 다른 대리인들과 비교해서 특수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다. 우선 브레즈네프가 병환으로 인해 체르넨코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면이 있는 것과 달리, 김정은의 경우 고도비만으로 거동이 원활하진 않을 것이나 현지지도나 정상회담 일정을 무리 없이 수행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sup>95</sup> 이는 김정은이 조용원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필요는

<sup>91</sup>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pp. 143~151;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pp. 309~315.

<sup>92</sup> 가령 김정은을 제외한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던 조선로동당 창건 78주년 행사 관련 기사를 보라. “조선로동당창건 78돐에 즈음하여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 당창건사적지 참관,” 『조선중앙통신』, 2023.10.11.

<sup>93</sup> Harry Gelman, *The Brezhnev Politburo and the Decline of Detente*, pp. 175~176.

<sup>94</sup> 조영남,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 (서울: 민음사, 2016), pp. 63~64.

<sup>95</sup> 이는 김정은에게 건강 이상징후가 없다는 국정원의 발표로도 뒷받침된다. 박수윤, “김정은, 살

없다는 뜻이다. 또한, 김정은이 자신의 후계자를 제외하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부여할 리는 없을 것이다. 이는 제1비서 직함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가장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용원이 그 자리에 임명되지 못한 것에서 드러난다.

또한, 김정은은 김덕훈, 박정천 등 다른 간부들에게도 이전에 확인할 수 없었던 특별한 대우를 보이는 등<sup>96</sup> 지도부 내부의 균형의 추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 3장 3절에서 조용원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모두 소속된 점을 언급하면서 그의 위상을 강조한 바가 있으나, 이러한 특권은 조용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다. 8차 당대회에서 리병철 역시 마찬가지로 3대 기구에 모두 선출되었으며, 이후 박정천도 그러했다. 정치국 정위원 전체로 범위를 확장한다면 리영길도 있는데, 다만 리영길은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원, 비서국 비서는 겸하였으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은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용원이 정치국 상무위원회, 비서국, 당중앙군사위원회에 동시에 소속된 것만으로는 조용원의 지위가 예외적인 수준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아울러 북한의 전통적인 철저한 간부 견제 정책을 복기해 본다면 조용원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이며, 3장 3절에서 일부 논하였듯이 조용원과 김정은 사이의 상하관계를 재확인, 강화하는 조치들이 이미 취해졌을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가 통합되어 당비서가 위원장으로 보임되는 강력한 기구로 강화되고, 규률조사부, 법무부 등의 새 부서들이 설치되는 한편 중앙검찰소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조직지도부의 일부 기능이 이관되어 조용원이 조직과 검열 문제에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권력자로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방송자료를 보면 조용원이 김정은과 철저히 주종관계에 놓여있음을 보여 주는 여러 모습이 연출된다. 조용원은 다른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김정은의 부름에 달려 나와 무릎을 꿇고 그의 말을 경청하며, 언제나 그가 먼저 앞길 기다리고, 김정

좀 빠지더니 도로 찢다...10년 만에 50kg 불어,” 『연합뉴스』, 2022.09.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815450050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3.10.19).

<sup>96</sup> 박정천의 경우 2021년 자위-2021에 그와 김정은이 같이 그려진 초상화가 걸려진 것이 대표적 사례다. “국방발전전략회 《자위 - 2021》 성대히 개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개막식에 참석하시어 기념연설을 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21.10.12. 김덕훈의 경우 가족코트 착용 및 그의 보도서열이 김정은 다음으로 상승한 것이 꼽힌다. 배영경, “北 먹고사는 문제 중요해지니... 김덕훈 총리 위상도 달라졌다.” 『연합뉴스』, 2022.09.12.,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8037100504?section=nk/news/all>> (검색일: 2023.10.19.).

은이 자리에서 일어서거나 그를 호명하면 즉시 일어난다.<sup>97</sup> 이러한 수직적인 모습은 김정은 정권 내부의 실제 힘의 균형을 보여주는 한편, 김정은이 국내외에 보여주고 싶은 구도일 것이다. 스펀릭이 지적한 것처럼 확립된 독재자에겐 실제 권력과 함께 바깥에 보이는 모습 역시 중요하다.<sup>98</sup>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조용원은 그 업무와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위상에 있어 두드러지는 점이 있긴 하나, 그가 다른 대리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 V. 전망과 결론

이상을 정리하자면 조용원은 김정일 후계 구축 시기의 교육정책의 수혜자로 후계자 김정은을 보좌함으로써 그의 측근 대열에 진입하였고, 김정은이 주도한 간부 세대교체의 수혜자가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이례적인 고속 승진을 보여주었으며, 8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하면서 북한의 최고 권력층의 일원으로까지 성장하였다. 그의 등장과 성장은 김정은 집권으로 인한 세대교체와 더불어 김정은이 보여주는 이전과 구별되는 정치적 리더십에서 기인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부상은 김정은 체제의 특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조용원은 김정은의 집권 이전부터 그를 수행해 온 일종의 ‘개국공신’과도 같은 인물로, 그가 치명적 정치적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후로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보이는 특별한 위상과 탄탄대로는 그에 대한 김정은의 강한 신임을 드러낸다. 또한, 김정은으로서는 이미 자신의 당내 대리인으로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는 조용원을 제거한다면 일정한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sup>99</sup>

<sup>97</sup> 김정은의 착석에 정치국 상무위원들 이하 지도 간부들이 축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은 자주 연출되고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행로에서 일대 분수령으로 될 투쟁과 전진의 대회: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개막,” 『조선중앙텔레비죤』, 2021.01.0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3.03; “〈록화실황〉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진행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 『조선중앙텔레비죤』, 2023.07.29.

<sup>98</sup> Milan W. Svobik,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p. 80.

<sup>99</sup> 이는 김정은에게 조용원을 제거할 힘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조용원 제거의 파급효과를 의미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이 그의 지위를 마냥 높여주면서 그를 무소불위의 공식적 2인자로 삼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여러 조치들을 통해 김정은은 자신과 조용원 사이의 상하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권 내부에서 한명의 엘리트가 다른 엘리트들을 압도하지 못하게 균형의 추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전문성의 한계 및 북한의 간부 정책을 고려한다면 그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수령에게 있어 대체 불가능한 특수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다른 북한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위상과 권위는 김정은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 그도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김정은이 조용원에게 전에 없이 많은 권한을 맡긴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이미 3대 세습까지 이루어진 북한에서 오로지 수령의 혈족만이 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 되었다. 2022년부터 김정은은 ‘김주애’로 알려진 딸을 공개석상에서 대동하며 미래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고 있는데, 김주애가 김정은의 후계자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나, 적어도 그의 후계자가 그의 자식 중에서 배출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sup>100</sup>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였다면 조용원의 위치는 지금보다 더욱 주목받았을 것이나, 그는 미래 권력이 아니라 현재 권력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조용원의 현재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정리, 추론하였으나 서론에서 인정하였던 것과 같이 자료의 부족으로 대부분 필자의 자의적 분석 및 추론과 외국의 사례에 의존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토리지안(Joseph Torigian)의 지적처럼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의 당내 정치는 지극히 모호한 것으로, 권력에 관한 당내의 신호들은 해당 분야에 오래 몸담은 인물들조차도 자주 오판할 정도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sup>101</sup> 분석 대상이 신뢰할 정보가 극히 부족한 북한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 결

---

한다. 흐루쇼프는 1957년 9월 전원회의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공신들을 지도부에서 갑작스럽게 제거했고, 이는 소련 지도부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the strongest psychological shock)’을 주어 흐루쇼프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켰다. Joseph Torigian, “‘You Don’t Know Khrushchev Well,’” p. 88. 김정은은 2020년 이후 일부 고급 간부들을 심각하게 비판하더라도 해임 후 복권하거나 아예 자리를 유지하게 해주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김덕훈, 리병철, 박정천, 리만건, 박태성, 김두일, 박태덕, 우상철, 김정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sup>100</sup> 2023년 2월 27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김주애 후계자설에 대해서는 이르다고 보았으나, 4대 세습은 확실하다고 보았다. 홍계성, “권영세 “김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건 일러…4대 세습은 확실”(종합), 『연합뉴스』, 2023.02.27.,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7031251504>> (검색일: 2023.10.19).

<sup>101</sup> Joseph Torigian, “‘You Don’t Know Khrushchev Well,’” pp. 107~109.

과를 내놓으면서도 전혀 확신을 담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 내부 정치 메커니즘과 북한 엘리트 연구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범적 연구에 불과하다.

■ 제출: 10월 19일 ■ 심사: 12월 4일 ■ 채택: 12월 6일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갑식·오경섭·이기동·김동엽. 『김정은 정권의 정치체제: 수령제, 당·정·군 관계, 권력엘리트의 지속성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15.
- 김정계. 『중국의 권력투쟁사 1949~1978』. 서울: 평민사, 2002.
- 리동구. 『비약의 나라』.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1.
- 맥파커, 로드리크 역음. 김재관, 정해용 옮김. 『중국 현대정치사: 건국에서 세계화의 수용까지』. 서울: 푸른길, 2012.
- 박영자.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볼코노노프, 드미트리 지음. 김일환 외 5인 옮김. 『크렘린의 수령들(하):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 고르바초프』. 서울: 도서출판 한송, 1996.
- 부에노 데 메스키타, 브루스, 스미스, 알라스테어 지음, 이미숙 옮김. 『독재자의 핸드북: 사상 최악의 독재자들이 감춰둔 통치의 원칙』.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2.
- 이종석·백학순.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성남: 세종연구소, 2007.
- 장진성. 『수령연기자 김정은: 북한의 권력실체 당 조직지도부를 해부한다!』. 서울: 비봉출판사, 2017.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중앙당상임위원회 편. 『위인실록 김정일장군(1)』. 도쿄: 조선신보사, 1997.
- 정성장.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이념·권력체제』.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1.
- 조영남. 『개혁과 개방: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1』. 서울: 민음사, 2016.
- \_\_\_\_\_. 『중국공산당 통치체제 1: 공산당 영도체제』. 파주: 21세기북스, 2022.
- \_\_\_\_\_.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서울: 민음사, 2019.
- 추예프, 펠릭스 지음. 이완중 옮김. 『몰로토프 회고록: 스탈린을 위한 변명』.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 태영호. 『3층 서기실의 암호』. 서울: 기파랑, 2018.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 서울: 선인, 2007.
- 황장엽. 『북한의 진실과 허위(개정판)』. 서울: 시대정신, 1998.
- \_\_\_\_\_. 『황장엽 비록 공개: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서울: 월간조선사, 2001.

- Barsukov, Nikolai. "The Rise to Power," in William Taubman, Sergei Khrushchev and Abbott Gleason (eds). *Nikita Khrushchev*.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0.
- Galeotti, Mark. *Gorbachev and His Revolu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7.
- Gelman, Harry. *The Brezhnev Politburo and the Decline of Detent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 Gorlizki, Yoram, Khlevniuk, Oleg. *Cold Peace: Stalin and the Soviet Ruling Circle, 1945-1953*.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 Huang, Jing. *Factionalism in Chinese Communist Par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Kaplan, Karel, Edited and translated by Fred Eidlin. *The Communist Party in Power: A Profile of Party Politics in Czechoslovakia*.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9.
- Miller, Alice L. "Leadership Politics," in Cheng Li (eds), *China's Changing Political Landscape: Prospects for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8.
- Mitrokhin, Nikolai. "The rise of political clans in the era of Nikita Khrushchev: the first phase, 1953-1959," in Jeremy Smith and Melanie Ilic (eds). *Khrushchev in the Kremlin: Policy and government in the Soviet Union, 1953-1964*.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1.
- Schattenberg, Susanne, *Brezhnev: The Making of A Statesman*. London: I.B. TAURIS, 2022.
- Svolik, Milan W., *The Politics of Authoritarian Rule*. New York: New York, 2012.
- Tompson, William, *The Soviet Union Under Brezhnev*.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14.

## 2. 논문

- 김진하.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권력집중 전략.” 『국가전략』, 제27권 2호, 2021.
- 노경덕. “서기국과 스탈린의 권력 장악 문제 -비판적 재검토, 1922-1927-.” 『史叢』, 제90호, 2017.
- 박은혜·안문석. “북한정치에서 김여정의 위상과 역할.” 『한국동북아논총』, 제27권 제4호, 2022.
- 이준혁. “조선로동당 정치국 변화 연구 -운영 방식 및 구성원 변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23.
- \_\_\_\_\_. “조선로동당 8기 정치국 인선 변화 연구 - 김정은과 그 지배연합의 관계를 중심으로 -.”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Vol. 9, No. 1, 2023.
- \_\_\_\_\_. “김정일 시대 조선로동당 정치국의 기능과 성격 연구.” 『국가전략』, 제29권 4호, 2023.
- Kalinovsky, Artemy. Decision-Making and the Soviet War in Afghanistan: From Intervention to Withdrawal.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ume 11, Number 4, Fall 2009.
- Torigian, Joseph. ““You Don’t Know Khrushchev Well” The Ouster of the Soviet Leader as a Challenge to Recent Scholarship on Authoritarian Politics.” *Journal of Cold War Studies*. Vol. 24, No. 1, Winter 2022.

## 3. 기타 자료

- 『국민일보』.
- 『동아일보』.
- 『로동신문』.
- 『연합뉴스』.
- 『월간조선』.
- 『일요신문』.
- 『조선일보』.
- 『조선중앙텔레비죤』.
- 『조선중앙통신』.
- 『중앙일보』.
- 『MBN』.
- 『YTN』.

영국 정부 <<https://www.gov.uk/>>.

## A research on the rise of a North Korean power elite Jo Yong Won and his role in North Korean politics

*Lee, Jun hee*

This study analyzes the WPK organizational secretary Jo Yon Won's political career and his role in Kim Jong Un regime, who is currently one of the key figures in North Korean politics. Inspired by the similarity between Jo Yong Won and the political career and role of Konstantin Chernenko, who had been aiding the Soviet leader Leonid Brezhnev for many years, this study extensively relied on the case of Chernenko to overcome the lack of information on North Korean internal politics.

After putting together Jo Yong Won's political career and his role as the organizational secretary, this study sorted Jo's role into Kim Jong Un's political secretary, the party's disciplinarian, and the messenger between Kim Jong Un and the WPK. By reviewing these three roles, this study concluded that Jo Yong Won is one of Kim Jong Un's deputies taking charge of party affairs and assisting Kim Jong Un's dominance over the North Korean regime.

However, despite some evidence showing a unique statue of Jo Yong Won, it is clear that his influence over the decision-making in North Korean policy is limited due to his limited professionalism and that Kim Jong Un's control over him is stable. Thus, Jo Yong Won's role in North Korean politics is not indispensable and remains checked and limited.

**Key Words:** Kim Jong Un, Jo Yong Won, The Worker's Party of Korea(WPK), The WPK Politburo<sup>102</sup>, The WPK Secretariat, The secretary for Organizational Affair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PK, Deputy.

<sup>102</sup> 조선로동당 및 조선로동당 조직비서의 영어 표기는 북한의 공식 표기를 사용하였다. 다만, 정치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Political Bureau로 표기하나, Politburo의 사용례를 확인하였기에 Politburo로 표기하였다.